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 집착·습 놓으면 계율 저절로 지켜져

## 오계 어기지 않고 사는 방법

**문** 선원에 몇 달 다니지도 않았는데 수계가 너무 받고 싶어 이번에 기초 교육을 받고 계를 받았습시다. 그런데 막상 계를 받고 나니 '계를 설할 때 물으셨던 5가지 항목을 정말 잘 지킬 수 있을까, 괜히 공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 자신과 부처님께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오계를 어기지 않고 평생동안 지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 계율을 지킨다 하면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죠. 단 오계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관념으로 계율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율을 지키다 안 지키다는 생각을 다 놓고 욕심과 집착과 관습을 다 놓아버리게 된다면, 놓고 가는 도중에 우리가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키는다는 편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계율 안 지키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닷물과 같고 허공과 같이 되라. 바다에 별의 별 물이 다 들어 가도 그냥 한 바다의 물로 돌아가고, 이런 물 저런 물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로 짓는다. 어떤 거든 다 짓는다.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탐심도 없고 집착도 없고, 남을 포함하지 않고 둘로 보지 않기에, 일체를 내 아픔 같이 생각하고 내 몸 같이 공심으로써,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키는다는 편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지 않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티라미에 지계바라밀과 인욕 바라밀이 있는데, 인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일어나는 마음을 꼭꼭 눌러 참는 게 인욕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참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참는 것은 참다운 인욕이 아니죠. 놓는 것이 인욕이예요. 그 자체를 놓는 것이 인욕입니다. 그래서 찾으라고 하지 않고 놓으라고 그랬죠.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찾는다면 놓이 되니까 그냥 놓아라. 너한테 보립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오계를 받고 둘로 보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놓는다면 그대로 그것이 인욕이요, 참담계 계를 지키는 겁니다.

## 하루속히 근본 보고싶는데...

**문** 저는 하루바삐 내 안의 근본을 보고 싶고 근본과 둘 아니게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배움도 부족하고 남들처럼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어서 마음공부 하는 것이 이렇게 더딘 게 아닌가 하는 자책이 많이 됩니다. 마음공부를 잘 하려면 역시 머리가 좀 깨고 배움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빨리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답** 마음 공부는 머리가 나쁘고 좋고 그걸 따져서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오직 마음이 진실해야 합니다. 머리가 좋으면 바깥의 환상만 보고서 자꾸 머리에 다 주워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만한이 생기죠. 그리고 또, 오만한 것보다 이게 아닐까 저게 아닐까 하고 자꾸 상대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놈

은 따라다니질 않거든요. 그저 해야 하는 한 가지만 붙든 채 바보같이 그냥 자기 가는 길만 갈 뿐이거든요.

그러니 중심만 딱 지키고, 내 중심의 주체를 딱 지키고 그 주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누가 하는가를 일념으로 지켜본다면 자기 주체가 나오게 됩니다. 이날까지 누가 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뱃속에서 누가 나왔고 이날까지 해온 것이 누가 해왔고, 부모의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간에 누가 해왔느냐 이겁니다. 각자 자기 그 주체를 빼놓고는 다 부속이예요.

그러니까 잘들 생각해서 뿔뿔리들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급하게 공부할 게 아니라 급한 마음이 있걸랑은 주처에 모든 것을 몰록 뉘어버리면서 믿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뉘어버리는 과정이 있음으로써 거기서 탁 하나가 의연히 나오게 될 겁니다. 내 말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 가도 해봐라 그걸 알 수 있겠지요?

## 어떤길 인도해 가르치시는지

**문** 부처님께서 마음이라는 당체를 가르치셨는데 마음에 의심이 없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즉시 안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한 단계를 거쳐 갖고 그거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즉시로 그렇다는 거를 인정해 주면 지식밖에 안되고 그 사람은 그걸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이 당해 들어 가지고 그 얘기가 내 다른 얘기가 아님을 알았을 때에는, 즉 일처했을 때는 그것이 거짓이 없음을 인정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모든 바깥 경계가 나인 줄 아는 보통의 사회 사람들은 그걸 모를 것입니다. 그럴 때에 스님께서서는 어떤 길을 인도해서 그걸 알게 하십니까?

**답** 아주 세밀히 묻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에서 모든 스님들에게 내면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가르치고 있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 공부들을 하고 있어요.

본래 이 자라도 공했거나 나 자체도 공했고 전체가 다, 내가 하는 것마다 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공을 잡고, 처음에 배울 때는 주인공을 잡지 않으면 도저히 허망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는 그 빗장을 쥐어라. 즉 말하자면 주인공을 쥐어라. 주인공을 쥐면 모든 걸 몰록 거기다 일입시켜 버리고 놔 버려라. 믿어라, 감사해라.' 이라고 나가죠.

그리고 나가는데, 그걸 바로 알아들으면 그대로 나가서 되는 거고, 직방 들어가서 '네가 바로 주인공이다' 이렇게 해버렸을 때 그것을 몰바로 알고 나가는 사람은 나중에 주인공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없이 자기가 몰록 알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실하게 계단 없는 계단을 묵묵히 밟아갈 뿐인 것입니다. 지금 하고 가는 게 늦든 빠르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말합니다.

## 미워하는 마음 풀고 싶은데...

**문**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지만 썬서리 미운 아이들도 있답니다. 그런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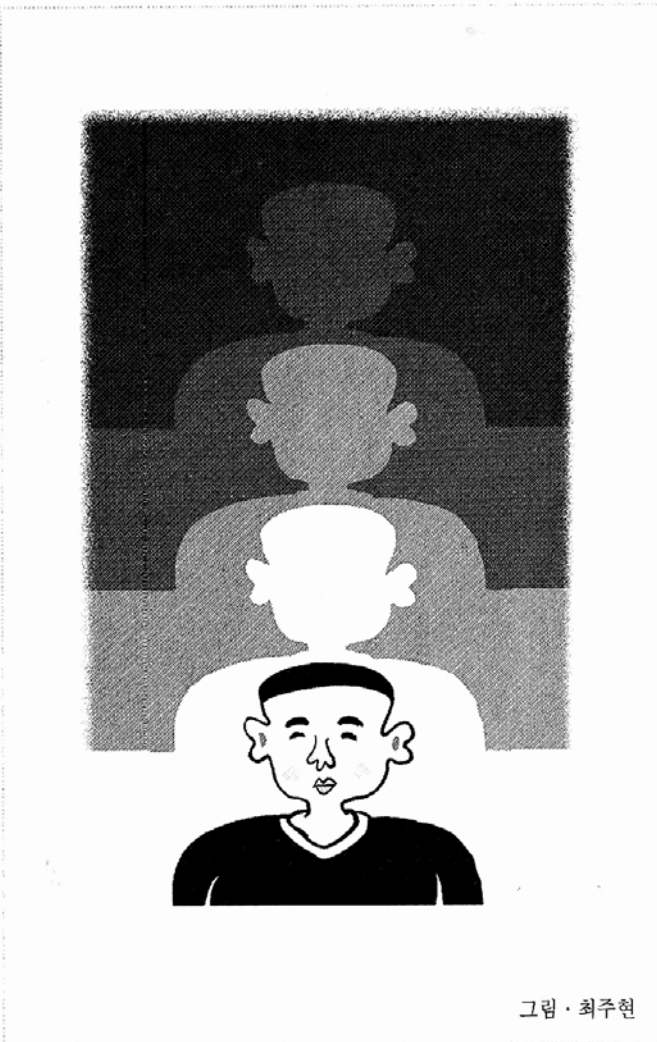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참는게 아니라 놓는것이 참 인욕 마음공부 머리좋은 것과 상관없어

운 아이의 얼굴만 봐도 미워지고 화가 나는 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아이를 미워하는 제 마음이 너무 힘이 듭니다.

**답** 나는 얘기를 재미있게 못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할 수 없어요. 난 가식으로 하고 싶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모두 평화롭게 살 수만 있다면 하는 것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생물에서부터 브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하면서 엇갈려서 되다보니까 어떠한 것도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미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전자에 그 사람에게 저렇게 밀게 보였던 시절이 있었겠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기까지 잘 웃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요. 그러다가 여러분 하고 돌 아나게 살다보니까 될 수 있으면 그저 들 아닌 도리를 알려드리면 편리하게 자유권을 얻으실 텐데, 자유자재하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한 생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생 동안 살다가 초원이 낮으면 짐승으로 될 수 있고, 짐승이 사람으로 될 수 있고, 그렇게 차원에 따라서 바뀌게 되

거든요. 그래서 한 생을 공부하면 편안하게 살뿐만 아니라 세세생생을 이 세상에서 고에 떨어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사람을 구하려면 이 모습으로 되고, 저 사람을 구하려면 저 모습으로 되고, 이것 구하려면 이게 되고, 모습을 바꿔가면서 구제를 하듯이 여러번도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면 또 거기서 차원이 더 높아지면 정말이지 선신으로서 어디 가든지 손색이 없고 모두를 이끌어 가는 대장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평등하게 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수 없는 억견을 거처으면서 어떤 거는 안 돼봤습니까? 또 어떤 일은 안 해봤겠습니까? 극치에 달해서 어떤 문제는 안 일으켰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내 모습으로 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내 모습과 같고, 내 아픔과 같고, 내 슬픔과 같고, 또 내 배고픔과 같고, 모두가 내 도량에서 나 아님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또는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네가 한 거니까 내가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다시 놓는 방법은, 이것이 말을 하자면 복잡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업식이 돼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의 정자 난자에 포함이 돼 가지고 자기 영혼에 다 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면세계에서, 화가 나고, 미운 사람 미운 사람, 뭐 증오하는 사람,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 또는 화가 나면 '에이그, 죽어버리겠다'는 생각, 다 버리고 어디로 가고 싶은 생각, 이런 것도 나오는 것이 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나올 때마다 거기다 다시 새로이 인력을 해라 이겁니다. 다시 인력을 하고 진실하게 믿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마음의 선장이 돼 가지고 잘 다스려 나가면서 제도를 해야 주위의 인연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면서 그 모든 경계가 공부 재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더 고마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무조건, 미움도 이쁨도 없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하려면 말입니다. 미운 사람을 보면 자기가 전자에 모를 때의 자기 모습, 아주 머저리 같을 때 나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게 자기니까, 그냥 보라고 하면 그게 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모든 역경을 타고 넘어온 자기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알든 모르든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뉘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 언덕이라는 데가 뭐 다른 겁니까? 물질세계의 마음에서 정신계의 마음으로 차원이 오른다는 말이죠. 피안의 세계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냐. 정신 세계가 피안의 세계죠. 그러니까 무조건, 무(無)의 세계의 진의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오로지 한 군데다가, 불기동한 군데다 다 놓으면 그냥 붙어 타버린다는 걸 알게 됩니다.

## 무심마저 놓아야 하는 이유

**문** 처음에 공부할 때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일체를 놓아야 하고, 나를 발견하고 나서는 무심마저도 놓아야 하기에 '놓고 또 놓고, 놓지 않음이 없을 때까지 놓아라.'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머리로는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무심이 부처라는 말도 있는데, 왜 그 무심마저도 놓아야 하는 것 인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놓는 방법을 지금 세 가지로 비유했는데, 일체를 놓아서 나를 발견했을 때에는 그 아는 것도 놓으라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게 있잖아요? 남이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나, 잘될 건가 못될 건가, 죽을 건가 살 건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을 속명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놓으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신통력을 다 놓아서 그 신통력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오신통에서 벗어나면 오신통이 됩니다. 그냥 무심으로써 역이 되는

거죠. 그럼 무심을 놓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나?

모든 들이고 내는 것을 다 놔둘 때는 오신통에서도 벗어나는데, 거기에서도, 무심에서도 또 뇌야 되거든요. 무심조차도 뇌야하는 것은 뭐냐하면 '사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 '사유'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것을 한데 합쳐보면 무슨 별칭이라든지 혹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동등이 전부 나오는 거죠.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서 뭐를 하고 있고, 뭐가 되어 있고, 뭐가 어둡고 있고 이런 게 전부 이 법망으로 인해서 그냥 딱 통신이 오는 거죠. 그렇게 통신이 오면서, 보는 것도 거울을 갖다가 놓고 보는 거와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뇌라 이겁니다.

그래서 놓는 게 세 가지입니다. 계단 없는 계단이 세 계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 방해해요. 그런데 보는 대로 그냥 그것도 놓는 겁니다. 무심에다 놓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어떻게 보이고 들리면 많이들 그걸 붙잡고 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그걸 놓아 줘야 합니다. 그거를 놓지 않으면, 그 모두를 속속들이 놓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가다가 중지해 버리게 되고, 어쩐지 아주 잘못나가는 일도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다 놓아 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 '몸부림 치듯 관하라' 하신 까닭

**문** 일체를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겨 놓고 관하여 보는 수행이 있어서 어떤 대목에서 스님은 아주 편한 마음으로 지켜보라고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관하는 것을 몸부림치듯이 하라 이렇게 표현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 둘을 다시 한번 더 가르쳐 주십시오.

**답** 생각해 보세요, 글썽, 몸부림 안 치게 생겼냐? 아, 네놈으로 인해서 전부 저질러진 일인데 네놈이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네놈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뭐 난 놈이 거기 재재하는 게 아니니까요. 과거에도 그놈이 살았을 한때에도 그놈이 지금 하고 가는 겁니다. '제 놈이 한 거니까 제 놈한테다가 모든 걸 맡겨라'는 작업부터 해야 만이 정말 신성한, 청정한 부처가 나온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밥도 안 해 놓고 배 부르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밥을 해서, 쌀을 다 씻어서 밥을 다 해 놓고 숟가락으로 퍼먹을 때, 또 퍼먹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퍼먹을 때 맛을 알죠. 이런 해 놓지도 않고 먹으려고만 한다면 어찌 그게 먹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살아 생전에, 어차피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을 한 번 선의 칼을 댄 거와 같이 생각하고 절대로 그냥 다시 깰 수는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모두, 그래서 몸부림 치면서 '내가 일을 저질러서 요렇게 살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내가 진화시켜서 이렇게 인간으로 형성시킨 거는 감사하지만 이 물주머니에서 한 방울이라도 나가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선 그냥 그저 제 놈한테다 내가 한 일들을 다 놓으세요.

그런데 안 놔진다고 그러죠? 사회에 나가면 그렇지 못하니 뭐 어머니 저러니 하고 안 놔진다고 그러죠. 내가 그런 소릴 자주 들었는데 안 놔지는 게 뭐 있습니까? 그대로 하는 거지. 그대로 생각 없이 그냥 딱치는 대로 그대로 해 나가라는 거지,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거 따지

20면으로 계속

가짜로 인연을 맺고 고를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수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S1 288쪽  
값 6,000원  
어서이문